

李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 필요한 후속조치 신속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15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대생들이 다들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의대생 향해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달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희생자 모욕, 무관용 엄정 대응 당부”

“내년도 적극적 정부 재정 필요... 효율적 예산 편성 준비해달라”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등 의청이 보고를 위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며 폭염·폭우 대비를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60대 서·호·정’ 이정부 1기 내각 광주·전남 성적표는

장관급 26명 중 호남 9명...광주·전남 출신 5명 입각 차관급도 7명...호남 중용, 현역 지역구 의원은 전무 일부 다선, 국회의장·단체장 관심...경쟁구도 다변화

‘60대 서(서울대)·호(호남)·정(정치인)’으로 요약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광주·전남 인사들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중용론에 힘이 실리면서, 늘 꼬리표와도 같은 ‘호남 출대’ ‘뒷발 푸대접’ 여론은 잦아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어 “어쉽다”는 반응과 함께 차기 선거 경쟁구도 다변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나온다.

14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 포함 장관급 26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9명으로, 비율로는 34.5%를 차지했다. 서울 2명, 경기도 3명, 영남 7명, 충청 3명에 비해 단연 눈에 띄는 점유율이다.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 통상 2~4명에 불과했던 역대정권 1기 내각과 비교하면 괄목할 약진이다.

광주·전남으로 범위를 좁혀도 대통령실에서는 장흥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 무안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책에 임명됐고, 장관 후보로는 광주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여수 출신 김성환 환경부장관, 장성 출신 김경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차관급도 보성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를 졸업한 황인권 경호처장을 비롯, 해남 출

신 임기군 기획재정부 2차관, 문신화 산업부 1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고홍 출신 류재명 과기부 2차관, 광주 출신 이형훈 복지부 2차관, 순천 출신 허민 국가유신청장 등 7명에 이른다. 액면 그대로만 보면 ‘인사 풍년’이다. “호남 민심에 부응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호남 중용에도 불구하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실정이다. 21대에 이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뒷발 매추 더불어민주당이 18대 0, 광주·전남 18석을 모두 싹쓸이했지만, 새정부 1기 내각에는 ‘18명 중 0명’을 기록했다.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 대통령실의 경우 현역 배지를 떼고 최소 2년간 집권군 무해야 할 곳이어서 현직 입장에서 의원직을 포기하기 쉽지 않고, 장관직은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많은 점이 ‘인선 고갈’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광주 최다선인 민형배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전남 4선 이개호, 3선 신정훈·서삼석, 재선 주철현 의원은 모두 전남지사 출마를 준비중이고, 광주·전남 최다선(5선) 박지원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6월 30일 기준

 기획재정부 구윤철	 교육부 이진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외교부 조 현	 통일부 정동영
 법무부 정성호	 국방부 안규백	 행정안전부 윤호중	 국가보훈부 권은을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보건복지부 정은경	 환경부 김성환	 고용노동부 김영훈
 여성가족부 강선우	 국토교통부 김윤덕	 해양수산부 전재수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자료: 대통령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산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 온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돼 해수부와 대형 해운사의 부산 이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지역 균형발전의 키를 쥐게 된 점을 예로 들며 “어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웃 전북만 하더라도 안규백, 정동영 의원이 각각 국방부와 통일부 수장으로 지명된 상태여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

우 중앙무대에서 국정컨트롤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지역 출신으로 중앙무대에 발탁된 인사들이 정권 초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경우 가깝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멀리는 2028년 총선에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어 “선거 구도 다변화와 경쟁자 인력 풀 확대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뉴시스

여야, ‘한성숙 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 “과도한 신상털기” vs “주요 증인 불발”

여야는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주요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과 증인 다수의 채택 불발을 두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는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네이버와 성남FC와의 관계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꼭 필요한, 확인해야 할 주요 증인들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해외출장으로 참석 못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부분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네이버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최 대표가 네이버 경영진으로 복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산자위가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기본적으로 청문회 준비하는 자세들이 안 돼 있다.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자료를 안 내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며 “물론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당시 네이버 부사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기소는 (네이버) 대표가 됐다고 해도 부사장 자리에서 결재라인에 있었는지, 업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네이버가 자료 제출하면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로서는 필요한 자료를 성실성의껏 내고 판단을 받아야지 ‘자료를 안 내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만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 사람의 신상털기가 아니고 그 후보자의 삶에 전문성이 있는지, 후보자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준비돼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게 인사청문회의 요체”라며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한 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늘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닌가. 성남FC와 성남과의 계약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래서 이 자리(인사청문회)에서 적절치 않아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권항엽 의원은 “최 대표는 지난 달 27일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인 데도 이미 해외 출장 요청을 했다”며 “당시 메일을 보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출장계획이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상 (해외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유진건설산업(주)

철근콘크리트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4, 502
(062)-655-1370
대표이사 정길화